第6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9月26日(金) 午前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城北區·利川市姉妹結緣報告의件
2. 城北區文化遺蹟地探訪計劃案

審査된案件

1. 城北區·利川市姉妹結緣報告의件(城北區廳長 提出) ····· 1面
2. 城北區文化遺蹟地探訪計劃案(崔桂洛議員 發議) ····· 4面

(10時07分 開議)

1. 城北區·利川市姉妹結緣報告의件(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安傑瑢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이천시자매결연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相國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대상은 경기도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결연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참석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시겠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우호협력협정서에 서명하고 자매결연체결 축하연에 참석하시고 도자기 축제를 참관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자기 축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교류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심과 농민이 교류협력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쌀이나 도자기, 과일 등 지역특산물이 풍부해서 우리 구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돼서 이천시와 교류를 하게 된 것이고 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호 교류가 용이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앞으로 많은 도움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와 이천시의 양 자치단체 현황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1949년 8월에 구가 신설되었고 이천시는 지난 '96년 3월에 이천군에서 시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이천시는 서울로부터 약 50㎞ 떨어진 우리나라 중앙부 경기도의 최동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의 길이가 27㎞, 남북은 36㎞로 긴 표주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24.5㎢인 반면에 이천시는 약 461㎢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저희가 48만 6,000명인데 이천시는 약 16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저희가 30개 동이고 이천시는 13동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저희가 1,646명이고 이천시는 약 절반정도인 844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저희가 1,294억인 반면에 이천시는 약 1,38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저희가 100%

이고 이천시는 약 71% 그리고 교육기관은 저희가 초등학교 25개, 중고등학교 30개, 대학교가 8개교인데 이천시는 초등 29개, 중고등학교가 21개, 대학교가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이번 이천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긴급하게 보고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천시에서 도자기 축제를 9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촉박하게 26일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이천시와 저희 성북구간에 큰 이해가 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점점 교류를 넓혀가고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늘 자매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가까운 시일내에 이천시를 방문을 하시고 교류를 하면서 넓혀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傑瑢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화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化錫委員 담양 영월에 이어서 경기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역특산물이 나온 것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 어떠한 앞으로 자매결연의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總務局長 金相國 저희가 당초에 담양과 영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 분야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수산물과 가까운 바닷가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가 또 용이하게 되지 않았고 그간에 또 두군데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수시로 교류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서로 방문하는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천시는 도시와 우리 서울과 가까운 특히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시고 또 특산물도 나름대로 이천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까운 상태에서 앞으로 교류를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자매결연 우리 국내에서 특별히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교류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徐化錫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가까운 거리가 이천이라고 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까운 곳이 포천, 파주 쪽도 먼 곳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지역 특산물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냐

○總務局長 金相國 말씀드린대로 자매결연을 한 없이 확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자매결연하면서도 당장에 무슨 이해 득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 숫자를 한 없이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자매결연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간의 연계가 있어가지고 이뤄지든지, 또는 행정기관간에 연계가 있어서 이뤄지든지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본다면 수산물 관계로서는 바다에 접한 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몇 개를 앞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委員長 安傑瑢 질의해 주십시오.

○柳成烈委員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화석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자매결연을 담양하고 영월하고 지금 현재 두군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매결연을 또 맺는다는데 의구심이 가고 꼭 필요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오늘 이천시에서 자매결연식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또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냥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3,3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면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

서 정말 성북구는 자립도도 낮은데 자꾸만 일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꼭 필요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불가분하게 해야 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두군데 기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또 만든다는 자체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가지 더 나쁘게 얘기하면 보고형식으로 하고 그냥 따라서 의결해 주면 그것으로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식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傑瑢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相國 자매결연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자치시대가 돌입하면서 과거와 달리 자치시대가 나름대로 법인격으로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시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도시간에 또는 자치단체간에 또는 외국의 도시간에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많이들 추진을 하고 또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농촌도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큰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류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하시고 우리 월곡1동에 영월군 같은 경우는 직판장을 개설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특산품을 직송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매결연했던 곳이 농촌의 두 곳으로써 상당히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에 이천시에서 저희한테 자매결연을 하자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이천시의 제의를 뿌리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천시를 검토해 본 바 저희와 예산규모도 비슷하고 또 지역 특산물이 유명한 이천쌀이라든지 또 과일이 상당히 풍부하고 물론 도자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앞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가 되고 한다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와 자매결연 사실 보고가 제가 말씀올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급하게는. 그런데 이천시에서 도자기 축제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축제고 국제적인 축제로서 이 기회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사람들이 제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자매결연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자매결연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26일날 잡게 되었고 또 위원님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자매결연을 2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하는 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국내 자매결연은 아직 특별한 돈이 한 푼도 안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특별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천시와는 관계가 없고 국제 자매결연에서 부득이하게 외국을 서로 왕복하고 교류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상정된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柳成烈委員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總務局長 金相國 외국에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그게 추가로 상정된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柳成烈委員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외국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5,500만원인데 3,300만원을 가지고 돈이 안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그것은 지금 이천시하고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예산이 3,300만원이 지금 서있잖아요.

○總務局長 金相國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3,300하고 5,400은 국제도시 러시아하고 북경에 방문단을 초청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비용정도는 들 수 있지만,

○柳成烈委員 아, 그래요?

○總務局長 金相國 예.

○委員長 安傑瑢 네, 서화석위원님과 류성열위원님께서 이천시간 우리 성북구와 자매결연 체결사안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성북구 이천시와의 자매결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停會)

(10時30分 續開)

2. 서울特別市城北區文化遺蹟地探訪計劃案(崔桂洛委員 發議)

○委員長 安傑瑢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문화유적지탐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행정위원회 최계락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崔桂洛委員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계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유적지 탐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예로부터 산세가 아름답고 수려하여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숨결이 깃든 유서깊은 수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찾아 옛선조들의 얼을 되새겨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유적지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향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탐방개요 및 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성북구 문화유적지 탐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傑瑢 네,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환주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金煥朱 존경하는 안걸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탐방하실 우리 구 관내 문화유적과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지방문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지방문화재에 해당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2개와 서울시 지정문화재 17개를 포함하여 총69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6개, 보물 22개, 사적 7개, 중요무형문화재 다섯분과 중요민속자료 2점이 있으며, 서울시 지정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11개, 무형문화재 1분, 기념물 1채, 민속자료 4개의 한옥이 있습니다. 기타 우리 구 문화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재는 정부의 지원이 경미하며, 단지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하여 드리며, 또한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등 한옥보수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많은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보존 및 관리를 하고있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문화재 보수는 이태현가 외 3곳에 3,842만원의 서울시비를 교부받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11회에 걸쳐 477명이 우리 구 문화유적지를 다녀갔습니다만 이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는 월70만원의 지원금이 국비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방문하게 될 문화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성곽입니다. 서울성곽은 우리 구 외에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일부를 지나며 서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연장 약17㎞에 달하는 조선시대의 석축도성으로 1963년1월2일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성곽은 건국초 태조때 한양천도를 결정하고 1395년 궁궐과 종묘를 지은 뒤에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정도전에게 성토를 측정 조사케 하여 도성축조에 착수하였습니다. 그에 동원된 인원만 해도 19만 7,47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세종4년에는 이 성을 대대적인 개축을 하여 토축부분을 석축으로 바꾸었으며 이때 동원된 인력이 약32만 2,000여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인이 관여하면서 많은 성문과 성벽이 훼손되었으나 서울시 주관으로 1963년, 1972년, 1976년에 걸쳐 거의 보수 개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삼선동에서 성북동까지 3.2㎞가 접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시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선생의 시무장은 성북동 222—12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4년7월5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현재 그의 딸 한영숙이 살고있습니다. 한용운선생은 1879년에 태어나 1944년6월29일 세상을 떠났는데 속명은 봉원, 용운은 본명이며 만해는 아호입니다. 시무장을 짓게 된 경위는 3.1운동으로 3년간 옥고 끝에 출옥하여 성북동 골짜기 셋방에서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벽산스님의 토지에 조선일보사 방응모사장을 위시한 몇몇 유지들의 도움으로 1933년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북창으로 당시 총독부 건물이 있는 곳을 등지고 집을 지어 당시의 일제로부터의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져있습니다.

다음은 가구박물관입니다.

성북동 330—577, 578호에 건축중인 가구박물관은 93년9월28일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현재 위치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은 대지면적 5,555㎡외에 95년12월5일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만 가사용허가를 받아 일부 전시한 상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현재 건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 공사비는 약25억원이 소요되며 소요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가구박물관 대표인 심철, 정미숙 부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약 3,000여점입니다.

다음은 정릉입니다. 정릉은 조선 태조의 계비인 강씨의 단릉으로 70년5월26일 사적 제20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능지로 보호하고 있는 면적은 약 9만평 규모로 현재 문화재관리국 산하 정릉관리사무소에서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처음 능지는 안암동이었으나 산역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 중구 정동에 자리를 정하였으나 태조가 승하함에 따라 제3대 태종은 성안에 능을 두지 않는 법이라 하여 그의 9년(1409년)에 현 위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경국사입니다. 경국사는 고려 충선왕때 건립하였으며 2만5,124㎡의 대지위에 9동 706㎡의 법당과 요사체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이승만대통령이 절에 들렀다가 보경스님의 인격과 태도에 감화되어 이후 몇차례 방문하였으며 1953년11월에는 미국 닉슨부통령이 방한하자 한국문화의 참모습이 이곳 경국사에 있다고 생각되어 이 절로 안내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찰은 88년7월28일 전통사찰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또한 보물 제747호인 목각 탱화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에 관련된 보고사항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委員長 安傑瑢 네,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유적지 탐방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散會)

○出席委員 15人

安傑瑢	金振權	高允根
丘在永	金壽榮	柳成烈
朴時俊	徐化錫	宋夏星
申宗鉉	兪鎭武	尹晩丸
尹弘老	崔桂洛	崔東煥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崔石根

○參席公務員

企劃室長	金煥朱
總務局長	金相國
文化公報擔當官	安明佑